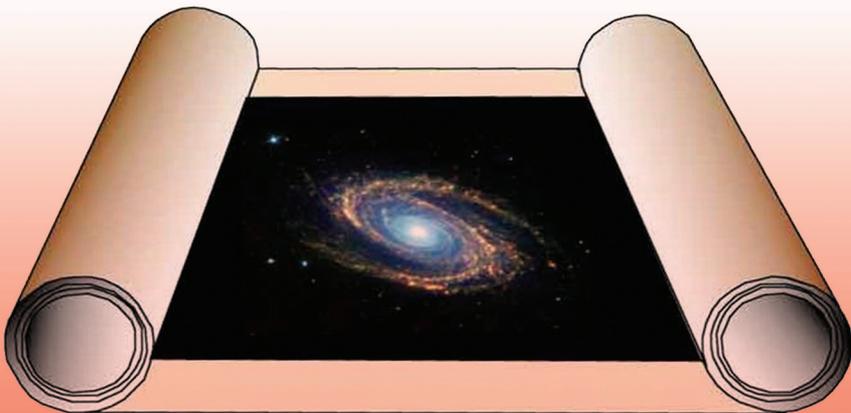


# CREATION

## TRUTH



새로운 천문우주 모델

## 시간의 팽창과 정지

성경에 따르면 창조 네번째 날 하나님이 별들을 만드셨다. 그런데 그 별빛이 지구까지 도착하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 지구에 있는 시계에 따르면 “전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이것이 험프리 박사가 최근 연구로 부터 얻은 결론이다. 험프리 박사는 창조과학연구소(ICR) 교수로 이 문제를 풀기위해 여러 해 동안 연구해 왔다.

그는 1994년 출간된 “별빛과 시간(Starlight and Time)”이라는책에서 우리의 은하(Milky way)가 우주의 중심이며 우주의 팽창과 중력에 의한 시간의 팽창(time dilation, 시간의 늘어짐)에 대한 천문학의 특징들을 발표하였었다.[1] 그리고 지구까지 별빛이 도착하는데 순간적인 것이 아니라 유한의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보았었다. 하지만 그는 당시 그 결과에 만족하지 못했었다. 이유는 1)근접한 별과 은하들을 설명하기에 충분한 시간팽창을 설명하지 못하였고, 2)아인슈타인의 중력장 함수 하나의 해(solution)에만 바탕을 두고 있어서 너무 복잡하고 명확한 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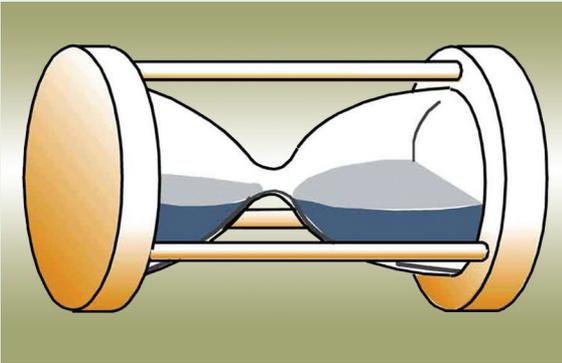
론을 내릴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험프리 박사는 최근 새로운 접근으로 그 문제의 해답을 찾아 그 결과들을 창조저널(Journal of Creation)에 발표하였다.[2] 그 논문의 부록에는 새로운 메트릭(계측자)과 유도식들을 자세히 보여 주고 있다.

## 시간의 팽창과 정지

새롭게 유도된 메트릭은 기존 것에 비해 복잡하지 않다. 비교적 간단하지만 엄격하다. 기존의 메트릭 안에서 시간팽창의 문제는 암시적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주목하지 못했었다. 하지만 새 메트릭은 시간팽창의 특징을 명확하게 보여주는데 임계점에 이르면 시간이

정지된다. 험프리 박사는 이렇게 시간이 팽창하다가 정지하는 특징을 무시성(achronicity) 또는 시간의 초월성(timelessness)이라고 불렀다. 이는 그 영역에서는 시간 자체를 포함하여 시계와 모든 물리적인 과정이 완전히 정지되기 때문이다. 이 현상은 하나의 블랙홀 중심으로부터 일정거리에 떨어진 사건의 지평(Event horizon)



모든 물리과정이 정지될 때 시간 또한 정지된다.

에서 시간이 완전히 정지되는 시간의 팽창(늘어짐)과 비교될 수 있다. 험프리 박사는 2008년에 발표한 논문에서 이 새로운 메트릭이 어떻게 직접 무시성(timelessness)에 이르는지 자세히 보여주었다.

그는 새로운 메트릭으로 1) 순수 중력에 의한 시간팽창, 2) 정지 상태 물체의 시간팽창, 3) 시간을 통제하는 빛의 속도 및 4) 빛의 속도를 통제하는 공간을 설명하고, 그리고 논문의 마지막 페이지에 시간의 팽창과 무시성을 새로운 천문우주 모델에 적용하였다.

## 두루마리 공간

이 새로운 천문우주 모델을 이해하는데 첫 단계는 먼저 우주가 텅빈 공간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해야한다. 과학과 성경말씀 모두 우주 공간이 우리가 볼 수 없고 감지할 수 없는 하나의 고체(solid material)임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다.

성경(이사야 40:22)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이 하늘을 장막(curtain)같이 펴시며”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 이 구절들은 그 우주공간의 물질을 마치 하나의 트램폴린(trampoline)과 같이 끌어당겨 펼쳐질 수 있는 장막이나 천(fabric)을 연상케한다.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우주를 보자. 이 우주는 길이, 폭, 그리고 높이 등 3방향으로 3차원이다. 책상 위에 편지지 종이 한장을 놓아 보자. 폭이 8.5인치 길이가 11인치 이지만 두

계는 단지 0.003인치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두께 방향으로서는 점유율이 크지 않다. 이번에는 그 종이를 하나의 두루마리 처럼 말아보자. 이때 우리는 책상 위에 있는 종이를 말기위해서 세번째 차원인 높이를 사용했으며 그 얇은 종이의 두께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줬다. 따라서 만일 하나의 물체가 한 방향으로 찌수가 매우 작으면 우리는 그 방향으로 종이 처럼 말 수가 있다(그림4참조). 그런데 성경은 하늘(우주공간)에 대하여 그렇게 말하고 있는 점이 매우 흥미롭다.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고... (사34:4).

여기서 성경의 문구는 “하늘의 무리(host of heaven)”를 뜻하는데 별들과 하늘의 공간을 포함하는 말이다. 또 여기서 하나님은 하늘을 통제할 수 있는 하나의 물질로 묘사하고 있다. 우리는 3 개의 축 방향으로 매우 높고, 넓고, 긴 하늘을 볼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하늘을 하나의 두루마리 처럼 말겠다고 표현 하고있다. 이는 하늘이 우리가 볼 수 없는 네번째 방향으로 매우 얇음을 암시해준다. 따라서 그 네번째 방향으로 더 큰 공간이 있음이 틀림 없으며 그 방향으로 말 수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이 구절의 미래 시제는 하늘들이 말아들일 때가 지금이 아니라는 뜻이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이 네번째 차원으로 우주공간은 펼쳐있는 두루마리 처럼 평평(flat)하다. 우리가 볼수있는 3차원은 보다 더 큰 4차원적인 공간 내에 얇은 종이장(sheet)처럼 존재한다. 일부 과학자들은 이것을 초월공간(hyperspace)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다음 호에 계속 됩니다.

**참고문헌**

1. Humphreys, D.R. 2008, New time dilation helps creation cosmology, Journal of Creation, 22(3): 84-92
2. Humphreys, D.R. 1994, Starlight and Time, Green Forest, AR: Master Books, 67. Creation Truth



아담과 하와에게  
이 “개어질”  
세상에서  
나쁜 일들이  
일어난 이유를  
설명하는 일은  
갑절로 힘든 일이었다.  
자기들이 그 세상을  
깨뜨릴 장본인들이었기 때문이다.





## 언어의 흔적 바벨탑

빙하시대를 통해 지구 환경이 더욱 악화되었을 뿐 아니라, 그 원인인 바벨탑 사건은 언어의 혼잡이라는 더욱 중요한 결과를 초래했다. 여기서 언어에 대하여 간단하게 다루어볼 필요가 있다. 과연 언어는 어떤 과정을 겪어 지금에 왔을까? 언어는 퇴적지층이나 화석과는 달리 당시의 물리적 흔적을 남겨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기원을 추적하는 것이 쉽지 않다. 결국 고전문헌과 최근의 언어 변화를 통해서 접근하는 것이 거의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이 어떻게 말을 시작하게 되었을까? 아직까지도 언어의 기원에 대하여 기존 학계에서는 “모른다”이다. 몇 가지 가설들이 존재하긴 하지만 설득력 있는 이론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래도 언어의 기원을 다루는데 그 가능성을 두 가지로 좁힐 수 있다. 첫째는 “말을 하지 못하다가 나중에 말을 하게 되었다”라는 전제이며, 다른 하나는 “인간은 처음부터 완벽한 말을 할 줄 알았다”라는 전제이다. 전자의 틀에서 설명하려는 사람들은 오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간이 점점 지능이 발달하여 언어라는 의사소통의 도구를 갖추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다. 당연히 이는 진화론적 전제며,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연구의 일차적인 대상을 동물로 그리고 가장 가까운 침팬지로 삼는다. 그러나 동물과 인간의 의사소통 방법은 전혀 다르다. 동물들은 문법적 구조가 결여된 신호체계뿐이며, 인간은 훨씬 복잡한 문법체계를 갖춘 언어이다. 이 두 개의 차이는 아주 크며, 아직까지 이 둘의 중간 단계를 발견한 예가 없다.

처음부터 말을 할 줄 알았다고 하는 후자의 경우는 성경적 기원이다. 성경에서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분은 말씀으로 창조하셨고(창세기 1장은 창조하실 때마다 ‘가라사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처음부터 완전하게 창조되었다. 그러므로 인간은 처음부터 그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할 줄 알았으며, 아담은 하와를 처음 보았을 때부터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에 살이라”(창 2:23)라는 완벽한 문장으로 아내를 표현했다. 실제로 인간은 자란 곳의 언어를 구사한다. 부모가 한국인이라 할지라도 미국에서 자랐을

경우 영어를 구사한다.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나라의 언어를 배울 수도 있다. 즉 사람은 언어의 잠재력을 처음부터 동일하게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언어학자들이 동의 하는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는데, 시대가 거듭될수록 언어의 문법구조는 복잡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단순해진다는 점이다. 이는 고대 문헌이나 최근의 언어변화를 보아도 쉽게 이해된다. 영어의 문법도 수십 년 전보다 지금이 훨씬 단순해졌다. 예를 들면 'will'과 'shall'의 구분이 예전보다 훨씬 적어졌다거나, 구어체에서 이미 'whom'이 사라지고 주격이나 목적격에 모두 'who'를 사용하는 것 등이다. 한국어도 예전에 모음조화(양성모음은 양성모음,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 어울리는 현상)를 이루면서 언어를 사용했었지만 지금은 이런 문법이 거의 깨진 것을 보여준다. 문법적 구조가 현재로 다가올수록 단순해지는 예는 이외에도 얼마든지 많으며, 영어나 한국어뿐 아니라 모든 나라의 언어에서 일어나는 공통적인 현상이다.

그렇다면 관찰된 내용을 거꾸로 소급해 올라가면 과거로 갈수록 언어의 문법적 구조가 훨씬 복잡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람들은 언어를 일부러 어렵게 사용하지 않는다. 이는 문법이 복잡했다는 것은 그만큼 언어구사 능력이 뛰어났으며, 표현의 맛이 있었고, 의사표시를 정확히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관찰은 오히려 진화론적 예상과는 반대이다. 언어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발달했다고 하는 진화론적 사고와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첫 사람의 언어가 완벽했으며 문법의 틀이 점점 파괴되어 왔다는 성경적 역사가 더욱 설득력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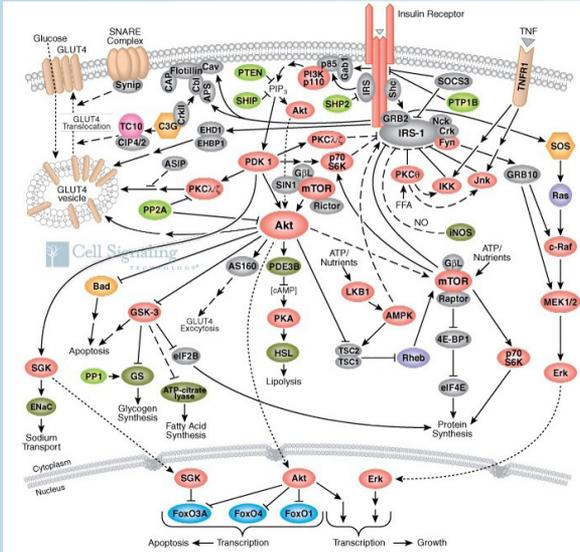
성경을 보면 창세기 10장에 이미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 흩어진 나라들이 나열되어있고, 11장에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기록하고 있다. 바벨탑사건 이전에는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one language and one speech)였었으나,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시므로”(11:7) 여러 언어가 생겼다고 말한다. 이때 ‘혼잡’이란 단어는 히브리로 바랄(Baw-lal)인데 영어로는 ‘confound; confuse; mix’ 등으로 번역되었다. 즉 각 민족에게 새로운 언어를 준 것이 아니라 기존 언어를 섞음을 의미한다. 아마도 언어의 기본 요소인 발음과 문법적 구조를 섞으신 것으로 보인다.

바벨탑을 건축할 때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창 11:4)고 했다. 이는 스스로를 높일 뿐 아니라, 방주에서 노아가족이 나왔을 때 “충만하리”(9:1)는 하나님의 명령에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이에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하신 것이다. 이때 언어가 서로 통하게 하는 그룹을 지었는데 “언어와 족속과 나라대로”(창 10:5)라고 기록되어있다. 영어로는 더 구체적으로 번역되어있는데 “after his tongue, after their families, in their nations”, 즉 “언어에 따라 가족에 따라 그들이 나라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언어를 나누는 기준을 정하는데 있어서 한 가족이 다른 언어를 사용하도록 하지는 않으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나누실 때도 자신이 창조하신 ‘가족’을 인정하셨다는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언어의 혼잡과 빙하시대, 둘 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일어난 하나님의 조치이다. 바벨탑 이후 흩어졌던 나라들이 창조주와 인류의 진짜 역사를 모두 잊어버렸지만, 선교와 전도 받음으로 인해 이 악화된 상황에서도 모든 것이 회복될 영원한 하늘나라 소망을 주신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 드린다.



이재만 부회장  
지질학, 과학교육학



열쇠와 자물쇠처럼 특별한 방법으로만 전달되는 인슐린 신호 체계의 일부

## 수천 개의 열쇠들

식사를 하고 나면 채 한 시간이 안 되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기 시작한다. 녹말같은 고분자 탄수화물들이 포도당같은 작은 덩어리로 소화(분해)되어 혈관으로 들어 가기 때문이다. 이 포도당은 근육이나 뇌에서 곧바로 에너지로 사용 되기도 하고 간에서는 글라이코젠(Glycogen)이라는 포도당 덩어리로, 지방 조직에서는 지방으로 형태를 바꾸어 축적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포도당만 있다고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간단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췌장(Pancreas)에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어 혈당과 함께 움직여 각 조직들을 흔들어 깨워 밖에 포도당이 많이 있다는 소식을 전해 주어야 한다. 이 때에야 비로소 각 조직의 세포들은 포도당을 세포 속으로 반입하여 에너지로 사용하거나 다시 저장 에너지 형태로 축적하게 된다.

인슐린이 조직의 세포 밖에서 소식을 전하면, 세포 안에서는 그 소식을 다시 세포의 구석 구석으로 확대 되면서 전달 되어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반입할 준비를 한다. 특별한 문(Glucose transporter)이 더 많이 설치 되고, 반입 된 포도당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세포 내의 모든 기계들을 만들거나 준비하기 위한 작업 등이 진행 된다. 이 작업에는 핵 속에서 필요한 DNA 정보를 읽어 오는 일, 이 정보를 토대로 필요한 생체기계들을 더 만드는 일, 생체 트럭을 통해 필요한 곳으로 운반하는 일 등 여러 작업들을 포함한다. 이런 모든 대사 과정에 필요한 준비가 일사분란하게 스스로 통제 되면서 이루어 진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려면 인슐린 신호가 세포 안에서 전달 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을 인슐린 신호(Insulin signaling) 혹은 인슐린 신호 전달(Insulin signal transduction)이라고 부른다.

어느 큰 회사에 주문이 들어 오면 그 정보는 회계 부서, 생산 부서, 물류 부서 등 필요한 곳에 전달 된다. 원자재를 구입하고, 운반하고, 가공하거나 조립하여 제품을 만들었다는 정보들이 전달 되

고, 다시 그 제품을 소비자가 원하는 곳에 전달했다는 정보를 받으면 회계 부서는 대금 청구서를 보내는 등 갖가지 정보들이 오가게 된다. 마찬가지로 인슐린이 세포막에 있는 인슐린 안테나(Insulin receptor)에 붙으면 이 신호가 급격하게 확대 되어 세포 내 필요한 모든 장소와 시간에 전달 되게 된다. 세포 안에는 언어도 없고 문자도 없기 때문에 신호들이 물리적인 방법과 화학적인 방법 혹은 전기적인 방법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달 된다. 세포의 신호 전달 과정에서 물리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들은 사람들이 흔히 사용하는 자물쇠와 열쇠의 방법과 비슷한데 이렇게 정확하게 서로 맞을 때만 신호가 전달 되게 된다.

그런데 세포가 자물쇠에 꼭 맞는 열쇠를 가지고 있다면 신호가 항상 전달 될 것이다. 만약 인슐린이 없을 때에도 까사로 인슐린 신호가 전달 된다면 이는 큰 문제다. 그러므로 세포는 평소에는 꼭 맞는 열쇠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 대신 세포는 신호가 왔을 때만 엄청난 속도로 그 열쇠들을 복사 하는데 그 열쇠들이 다음 단계로 신호를 넘기게 된다. 인슐린의 경우 인슐린 안테나 자체가 열쇠 복사기다. 이 때 열쇠(Insulin receptor substrates)는 간단하게 만들어 지는데, 이미 자물쇠에 꼭 맞지는 않지만 비슷하게 생긴 열쇠에 간단한 화학분자(Phosphate)를 붙이는 방법을 사용한다. 그러면 자물쇠에 꼭 맞는 열쇠가 되고 인슐린 신호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이런 과정이 여러 단계에서 진행 되는데 각 단계마다 열쇠들을 여러 번 만들기 때문에 각 단계를 넘어 갈수록 신호는 확대 되기도 한다. 또 어떤 경우에는 반대로 정확한 열쇠에 붙은 그 화학분자를 떨어뜨려 인슐린 신호가 전달되게 하는 경우도 있다. 중요한 점은 생체 신호들이 그냥 무질서하게 퍼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고 정밀하게 전달 된다는 점이다.

그런데 세포 속에는 인슐린 신호체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 많은 다른 호르몬들을 위한 신호체계가 있다. 전기 신호체계나 화학 신호체계들이, 마치 미국 전역에 전기줄과 전화선 및 기타 무선 통신망들이 준비하게 깔려 있듯이, 복잡하게 그물망처럼 서로 얽혀져 있다. 지금까지 과학자들이 발견한 여러 가지 신호체계들을 표시한 그림이 위의 그림이다. 자물쇠와 열쇠 혹은 화학적인 방법으로 각 단계마다 특수하게 신호들이 정확하고 정밀하게 전달 된다. 만약 이 중에 몇 가지의 신호 전달 체계가 무너진다면 세포는 살아남기 어렵다.

이렇게 수 천 개의 열쇠와 자물쇠의 관계를 가진 세포가 각각의 자물쇠와 열쇠를 스스로 준비 할 수 있을까? 각각의 자물쇠와 열쇠에 해당하는 단백질들이 우연한 화학 반응을 통해 저절로 만들어 지고 모아져서 신호 전달 체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진화론적인 생각은 과학 법칙이나 경험들과 상반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포가 진화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무신론적인 믿음의 표현일 뿐이다. 과학적인 논리를 적용하면, 수 많은 자물쇠와 열쇠 관계를 보여 주고 있는 인슐린의 신호전달 체계는 자연적으로 생긴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지적이고 능력이 대단한 존재가 만든 것이다.

성경에는 피조물들을 보면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볼 수 있다고 기록 되어 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발견한 세포의 신호 체계들을 보면 성경의 기록이 액면 그대로 정확하다는 것을 믿을 수 있다. 이 성경의 창조자를 믿으면 과학을 하는 데 유익할 뿐만 아니라 그 창조자를 알게 될 때 과학자들과 철학자들이 그렇게 알고 싶어하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비로소 답을 할 수 있게 된다. 성경이 사실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성경에 기록 된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를 알고 믿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우성 박사  
생리학



### 창조과학 탐사여행

#### EM 창조과학 탐사여행

지난 12월 20-22일은 은혜의 방주교회, 27-29일은 열바인 온누리교회 EM 중 고등부에서 창조과학 탐사여행을 떠났습니다. 두 주 동안 세대의 버스가 출동하는 EM 창조과학 탐사여행이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2010년 12월은 EM만 탐사여행을 가지는 귀한 기록을 세웠습니다. 인도는 김선욱 박사, 김낙경 박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 2011년 모집하는 창조과학 탐사여행

탐사여행의 대부분은 교회나 단체에서 신청이 옵니다. 아래 탐사여행은 창조과학 선교회에서 직접 모집하는 탐사여행입니다. 모집 탐사여행은 빨리 마감되므로 서둘러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유학생 탐사여행은 대기자 명단이 수십 명에 달했습니다. 유학생 탐사여행과 신학생 탐사여행은 서울 온누리교회, 열바인 온누리교회, ANC 온누리교회에서 후원하므로 참가비가 훨씬 적지만 자격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각 탐사여행에 대한 문의는 창조과학선교회 사무실로 해주세요(213-381-1390).

6월 20-22일	3차 신학생 탐사여행	신학생(\$90)
6월 23-25일	빙하시대 탐사여행	자격 제한 없음(\$300)
6월 27-29일	12차 유학생 탐사여행	유학생(\$90)
7월 18-20일	창조과학 탐사여행	자격 제한 없음(\$300)

#### 월드미션대학 겨울 특강 종료

지난 12월 13-23일 LA에 위치한 월드미션대학 창조과학 겨울 특강을 마쳤습니다. 이번 특강은 매일 4시간씩 9일간 진행되었는데, 이재만, 최우성, 최태현 강사가 팀을 이루며 진행했습니다. 남가주에 위치한 신학교에서 창조과학 과목이 개설되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2011년에도 계속해서 진행될 것을 기대합니다.

## House of Siloam 일본인을 위한 세미나

지난 12월 18일 Lake Elsinor, CA에 위치한 House of Siloam에서 최우성 박사의 인도로 일본인들을 위한 창조과학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3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기원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이란 주제로 90분간의 세미나가 진행되었고 그후의 질문과 대답 시간이 1시간 가량 더 계속되었습니다. 일본인들의 진리에 대한 열망이 뜨거웠던 것을 느꼈으며 진화론의 문제가 신앙의 심각한 장애가 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매년 이어지는 창조과학 탐사여행과 더불어 세미나가 활발히 열려 일본인들에게도 순전한 복음이 심겨지기를 바랍니다.



### 제 19기 창조과학학교 개강

- 일시: 1월 21일 - 3월25일(매주 금요일 7:30 - 9:50 PM)
- 장소: 새한교회(2531 W. Pico Bl., Los Angeles)
- 대상: 누구나 환영합니다
- 문의: 213-254-7547(최우성 박사)



## 고통과 죽음

## 그리고 복음

### 9. 고통과 죽음

선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 세상은 고통과 죽음으로 가득한가? 이 질문은 믿는 이들이나 믿지 않는 이들 모두에게 어려운 질문이다. 하지만 이 질문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창세기 1-3장을 읽어보면 그 답이 있다. 거기에는 시작이 있다? 하나님께서 6일동안 온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심히 좋았다”고 하실만큼 (창 1:31) 그 창조된 세계는 완전했으며 죽음이 없었다. 그렇다면 죽음은 어디로부터 왔는가?

죽음은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았다. 창세기 2:17절은 “선악을 알게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라고 적고 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때에 이 완전한 세계에 죽음이 들어온 것이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고전 15:21).

우리는 이 땅의 고통과 죽음이 아담의 죄, 즉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으로 인한 결과임을 이해해야 한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다.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으며 우리 또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기 때문이다 (롬 5:12). 의인은 하나도 없다.

기쁜 소식은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사실이다. 그는 부활을 통해 죽음을 이기셨다. 그분이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가 영원히 그분과 천국에서 살 수 있는 방도를 마련하셨다. 그리고 그분은 그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장래에는 죽음이나 고통이 다시는 있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완전한 세계가 회복될 것이다.

저자 소개: Tommy Mitchell은 American College of Physicians의 멤버이며, 밴더빌트 의대에서 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현재 AiG에서 연구자와 강사로 섬기고 있다.

## 10. 복음

인간 역사의 전환점은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창 12:3)라고 말씀하셨던 순간이다. 하나님은 아브람의 씨를 통해 온 세계가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이것은 약속된 아브라함의 후손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다. 그분은 완전한 삶을 사셨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으며, 그를 믿는 모두에게 자신의 생명을 드리셨다 (고전 15:1-4).

이 복음이 모든 기독교 사역의 초점이 되어야 한다. 사역의 궁극적 목적은 단지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Answers in Genesis의 사명선언문은 이렇게 말한다: “창조의 과학적 측면은 중요한 것이지만 부차적인 것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주권자요, 창조자요, 구원자요, 그리고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다.”

기독교인들은 “견고한 진” (고후 10:4)을 파하기 위해 논변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마지막 결과는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전하는 것이다. 사실에 대한 지식만으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진정한 힘은 인간의 논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하신 일에 있다.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요 14:6). 어떤 다른 이름도, 아무리 대단한 설득력도, 아무리 유창한 말도 사람을 구원하지는 못한다.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골 2:3). 기독교인들은 언제나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벧전 3:15). 기술적인 질문들에 대한 대답들은 성령이 적절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강하게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대답들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한 걸음일 뿐이다.

기독교인들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인정된 자임을 보일 수 있도록 공부해야 한다 (딤후 2:15). 아무리 지적이고 반성경적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일을 부끄러워해서는 안된다.

잊지 말아야 할 것. 복음은 창세기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이다!

저자 소개: Mike Riddle은 미 해병대 장교였으며, AiG의 유명 강사이다. 수학과 교육학을 전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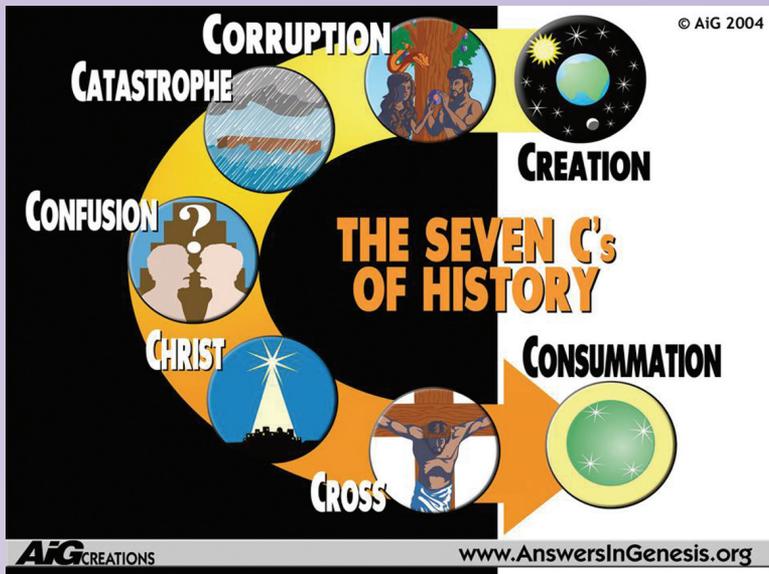
### ITCS

창조과학선교회의 인턴십(Intensive Training for Creation Science; ITCS) 과정은 창조과학을 체계적으로 배우거나 전문적으로 사역하기를 원하는 인재 육성을 위해 마련된 집중 교육훈련 프로그램입니다.

인턴십 지원 과정, 생활, 그리고 비용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최우성 박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 ITCS-1: 매 년 여름 방학과 겨울 방학 기간 중에 열림(각 10주 과정)
- 제 4 기 ITCS-1: 2010년 12월 20일 - 2011년 2월 25일
- 제 5 기 ITCS-1: 2011년 여름 방학 예정
- 문의 사항: 213-381-1390/ 최우성 박사 (mailforwschoi@gmail.com)

# 태초에 하나님이



매 새해 벽두에 통독을 위해 의욕을 가지고 우리가 읽기 시작하는 성경의 첫 구절은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이다. 그리고는, 창조에 대한 확고한 신앙과 지식이 없다면 그저 환상적인 이야기에 불과할 6일간의 위대한 창조의 이야기가 나온다. 계속해서 에덴동산과 선악과의 이야기, 노아홍수의 이야기, 바벨탑 이야기 등 고대 신화에서나 나올법한 이야기들이 창세기 11장까지 이어진다. 12장에 이르러서야 이제 우리에게 익숙한 “너는 본토 친척 아버 집을 떠나”라는 하나님과 아브람의 만남이 시작된다.

우리에게 성경은 어디에서 시작하는가? 보다 정확히 말해, 우리에게 역사적 사실로서의 성경은 어디에서 시작하는가? 성경이 어디에서 시작하느냐의 문제는 우리 믿음의 기초가 어디이며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가, 그리고 복음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에 영향을 준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처음에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창조하셨다는 성경의 계시는 우리에게 최소한 세 가지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을 준다. 첫째, 세상에는 주인이 존재한다. 둘째, 역사에는 목적이 있다. 셋째,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첫째, 세상에는 주인이 존재한다. 물질이 스스로 처음부터 존재했다고 하는 무신론적 유물론은 이 세상의 주관자를 알지 못한다. 단지 한 가지 있다면 만유인력과 같은 자연법칙 또는 돌연변이와 같은 우연의 힘이다. 이런 세계에는 인격과 의지를 지닌 주인이 없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 이 세상은 스스로 존재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창조한 주인이 있으며 그 주인이 바로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다. 세상에 주인이 있다

#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주인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은 바로 주인의 의지를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두 번째 가르침이 나온다.

둘째, 역사에는 목적이 있다. 주인이 없이 법칙이나 우연이 지배하는 세상에는 목적 같은 것은 있을 수 없다. 역사 또한 있을 수 없다. 역사란 돌이킬 수 없는 저마다 독특한 사건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의미있게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법칙이 지배하는 세계는 사건의 독특성이 없다. 모든 사건은 법칙의 복사일 따름이다. 사과가 앞서거나 뒤서거나 떨어진다 해도 그것은 똑같은 장면의 반복일 뿐 역사가 아니다. 우연이 지배하는 세계는 의미와 연결이 없다. 우연이 지배하는 동전던지기에서는 맨 처음 던질 때나 백만번째 던질 때나 앞면이 나올 확률은 똑같다. 이런 것은 역사가 아니다. 하지만 이 세계는 주인이신 하나님이 있으며, 역사는 바로 그분의 의지에 의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흘러가는 것이다. 거기에는 모든 사건들이 독특하고, 저마다 의미가 있으며, 하나의 목적을 향해 모두 연결되어 있다 (그림 7 C). 그 중심에 바로 창조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이다.

셋째, 그 주인은 인간에 대해서도 독특한 의미를 부여하셨다. 즉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다. 법칙이나 우연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인간은 아무 것도 아니다. 인간은 그저 모든 것이 결정된 세계, 혹은 반대로 그저 혼란한 세계에 내던져진 존재일 따름이다. 그 자신도 물질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헛되고 헛되다는 것(전1:2)은 이런 인간의 모습에 대한 가장 솔직한 고백이다. 그러나 성경은 그 인간을 하나님께서 권념하신다고 반복해서 말씀한다(창8:1, 출2:25, 시8:4, 히4:15). 인간은 물질이 아니라 영적 존재이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품과 능력을 닮도록 특별히 창조하신 존재라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이 어떤 지혜로운 사람들의 머리 속에서 나온 “훌륭한 철학체계”가 아니라, 바로 “사실”이라는 점이다. 이 차이를 구분해야 한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사실”이지, 인간이 어떤 초월적인 존재를 닮았다면 좋으니까 그렇게 믿고 살자거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전제하면 웬지 더 고귀해지는 것 같기 때문이 아니다. 역사에 목적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는 “사실” 때문이지, 역사에 목적이 없다고 생각하면 우리 마음이 허전하기 때문이 아니다. 유신론적 세계와 무신론적 세계는 어떤 세계관이 우리에게 보다 더 나은 삶을 제공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또한 어떤 세계관이 더 논리적이고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느냐의 문제를 넘어선다. 유신론적 세계와 무신론적 세계는 무엇이 “사실”이냐의 문제이다. 창세기 1장 1절은 이 땅을 밟고 서 있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사실에 대한 단순명료한 계시이다. 이어지는 칼럼에서 창조에 기초한 우리의 세계관에 대해 하나하나 이야기를 풀어가기로 한다.



최태현 강사  
행정학



## 순복음 라스베가스 교회 탐사여행 간증문

(9/27 - 9/29, 2010)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창조과학을 귀하게 사용하실 것을 저는 이번 탐사여행을 통해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주 다른 방식으로? 선포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큰 감동을 받았고, 이것이 사탄의 이론인 진화론에 대한 해답이란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과학자들"을 축복하소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시대에 창조과학 사역을 통해 진리와 그 분 말씀의 중추인 성경을 회복 시키실 것입니다. 조류가 바뀌고 있습니다! 얼마나 흥분되는 일입니까!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제가 그 사역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기쁩니다. - 강일진 목사

한국에서 미국에 온지 얼마 안되어 순복음 라스베가스교회로 인도가 되었고, 또 창조과학 탐사여행에 참가하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위대하심도 알게 되었고, 더욱이 노아홍수가 저 이스라엘이나 터키 근방의 어느 한 지역에서 있었던 사건으로만 알았는데 그랜드캐년에서 노아홍수의 흔적을 볼 수 있는 자세한 설명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친구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자신감이 조금은 생겼습니다. - 신오성

성경을 교과서처럼 읽는 것은 아니었는데 이번 창조과학 탐사여행을 통해서 성경을 좀 더 깊이 파고 들지 못한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 나올 때 마다 부정을 나타내었던 제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종류대로 지으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아방주에 한 쌍씩 들어간다면 너무 작지 않았을까? 방주에 어떻게 다 들어갈 수가 있을까? 하나님은 왜 좀 더 크게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있었는데 이번 창조과학 탐사여행을 통해 답변을 얻었습니다. - 이순주 목사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천지와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알았지만, 이번 창조과학 탐사여행을 통하여 더 자세히 눈으로 볼 수 있음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창조 속에서 나를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 모정희

성경으로만 알았던 것을 이번 창조과학 탐사여행을 통하여 더 자세히 알게 되었고, 또 다른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을 대변할 수 있을 것이며, 이 사역을 통하여 믿지 않

는 불신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많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 고봉애

항상 성경 말씀을 믿었지만, 이번 창조과학 탐사여행을 통해 성경 말씀을 더 확실히 믿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장정래

이번 창조과학 탐사여행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확실히 믿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 김수지

하나님 창조의 세계를 눈으로 확인하며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얻을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자라는 세대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할 사실이고 대를 이어 전하며 확인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창조과학 탐사여행을 통해서 갑자기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저희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깊게 생각해보고 자료들도 좀 더 깊게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윤정

이번 창조과학 탐사여행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인류는 한 혈통이라고 하신 말씀을 수없이 읽었지만, 이번 탐사여행을 통해 우리는 모두 한 혈통, 한 조상이라는 확실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하루빨리 진화론의 잘못된 것이 없어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론이 학교에서 가르쳐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 최복래

이번 창조과학 탐사여행은 “?”를 많이 가지고 있던 저에게 확실한 믿음과 자신감까지, 그리고 주님을 향한 의리까지 얻을 수 있었던 여행이었습니다. 잘못된 세상교육에서 굳어진 제 머릿속의 사상과 생각을 송두리째 올바른 사실로 맞춘 여행이었습니다. - 김명옥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생활을 하였지만, 진화론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해주신 성경에 위배되는 확실임을 믿으면서 성경을 펼쳐두고 말씀으로 풀어 설명할 수 있는 조리 있는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탐사여행을 통해 생명 주신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셨는데 성경 속에서 모든 증거를 사용하지 못했던 부족함을 깨우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 김성자

2011년 ACT Schedule

- 2/4 창조과학학교, 새한교회 (최우성), LA, CA
- 2/9 오렌지카운티 제일장로교회, Westminster, CA
- 2/11 창조과학학교, 새한교회 (이재만), LA, CA
- 2/13 주님의영광교회 (최태현, 213-381-1390), LA, CA
- 2/16 오렌지카운티 제일장로교회, Westminster, CA
- 2/18 창조과학학교, 새한장로교회 (이재만), LA, CA
- 2/19-21 창조과학 탐사여행 (의사팀, 213-381-1390)
- 2/23 오렌지카운티 제일장로교회, Westminster, CA
- 2/25 창조과학학교, 새한교회 (이재만), LA, CA
- 2/26 새생명비전교회 (이재만, 213-381-1390), Los Angeles, CA
- 2/26 샌디애고 창조과학 박물관 (최우성, 창조과학학교, 213-386-2160)
- 2/28-3/4 창조과학 탐사여행 (한국 생터 성경사역원)
  
- 3/4 창조과학학교, 새한교회 (최우성), LA, CA
- 3/4-5 어스틴 한인장로교회 (이재만, 512-454-1727), TX
- 3/8-11 창조과학 탐사여행 (House of Siloam, 951-245-9500)
- 3/11 창조과학학교, 새한교회 (최우성), LA, CA
- 3/13 주님의영광교회 (이재만, 213-381-1390), LA, CA
- 3/13 생수의 강 선교교회 새신자반 (이재만, 562-653-0168), Cerritos, CA
- 3/17 서울 장신대학교 채플 (이재만), 한국
- 3/18 창조과학학교, 새한교회 (최태현), LA, CA
- 3/23-25 요꼬하마 미도리노 교회(이재만), 일본
- 3/25 창조과학학교, 새한교회 (최태현), LA, CA
- 3/27 요도바시 교회(이재만), 일본
- 3/28-29 나가노 히지리아마 고원캠프, 초등학교(이재만), 일본
- 3/31-4/1 니이카다 교회연합 (이재만), 일본
  
- 4/3 아찌요 온누리교회
- 4/8-10 아틀란타 베다니 장로교회 (이재만), GA
- 4/10 주님의영광교회 (최우성, 213-381-1390), LA, CA
- 4/16 산호세 임마누엘장로교회 (이재만, 김선욱, 김낙경), San Jose, CA

● 보다 자세한 일정은 웹페이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후 원

SPONSORSHIP

창조과학 선교회는 초교파 선교단체로서 여러분의 후원으로만 운영됩니다. 창조과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기를 바라는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재정적으로 후원을 하실 분들은 미국 비영리 단체(Nonprofit Organization)로 등록되어 있는 ACT(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로 후원금이 입금되도록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홈페이지(www.HisArk.com)를 방문하시면 온라인으로 후원이 가능합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Payable to : ACT



**창조과학선교회 |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한국창조과학회 미주지부)

Mailing address | 3010 Wilshire Blvd. PMB 578, Los Angeles, CA 90010  
Office Address | 1520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15  
Tel. 213 381 1390    www.HisArk.com / hisark@gmail.com